

주간기도정보

2024. 11. 5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사 62:7) 주님은 열방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간기도정보는 이 말씀에 근거하며, 열방의 소식들을 진리의 말씀에 기초하여 주님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모임입니다.

진행순서 (1) 예배 (2) 한국과 북한,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3) 열방을 위한 기도 - 한주간 긴급기도

1.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하리라”

한반도 안보 난기류...“어둠 깊을수록 길 열린다 각오로 기도를”

북한 파병·ICBM 도발로 긴장 고조...북한선교 전략 어떻게



“동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두운 것처럼 예상치 못한 가운데 길이 열리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최근 북한 정권을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사태에 대한 북한선교 전문가의 진단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벌이는 러시아에 수천 명의 군 병력을 파병한 데 이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까지 감행했다. 오물 풍선도 수개월째 계속 띄워 보내는 등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이 같은 현실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향후 북한을 향한 선교는 어떤 청사진을 그려야 할지 난감하다. 전문가들은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을 향한 긍휼한 마음과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탈북민을 대상으로 북한선교의 당위성과 사명감을 고취하는 일도 중요하며, 방송전파 등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전현구 통일광장기도회 사무총장은 31일 “(현재의 북한 상황이) 예상치 못한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평화와 복음의 통일을 성사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북한 주민을 긍휼히 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탈북민에 대한 관심도 강조됐다. 북한의 내부 변화로 대규모 탈북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탈북민의 역할이 더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봉 한국교회통일선교교단협의회 사무총장은 “북한에 대한 혐오감이 탈북민에 대한 혐오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탈북민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화해를 위한 자원임을 강조했다. 그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잘 정착하면 북한에도 소식이 전해져 변화의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탈북민 출신인 지성호 함경북도지사는 이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내일이라도 통일이 올 수 있다는 각오로 기도하고, 통일의 디딤돌이 될 탈북민들에게 북한선교의 당위성과 사명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잇단 도발과 관련, 북한 정권 내부가 불안하다는 방증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북한 주민의 민심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주연중 총신대 통일개발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러시아와의 결탁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벗어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체제 유지를 위한 발버둥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주 교수는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접근하려면 국제사회의 소식과 외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향후 북한선교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정보 전달과 복음 전파가 가능한 방송전파 등의 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통일 이후에도 북한 주민들이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보편적 규범을 학습할 기회를 제공해 보다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출처: 국민일보 종합).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사도행전 26:17-18)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명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이사야 58:9-10)

하나님, 남북분단 이래로 계속된 위기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한반도에 평화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쟁위기에 대하여 안일함과 북한 동족을 향한 무감각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의 유익과 만족에 머물렀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북한과 러시아의 결탁으로 어둠이 깊어져 가는 이 땅 위에 오직 주님만 소망이시오니 한국교회가 북한 동포를 사랑함으로 심정이 동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툼을 조장하는 사탄의 권세를 파하시고 모든 영혼의 눈을 뜨게 하사 주께로 돌이켜 분단된 조국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소서. 또한 탈북민들이 예수님을 믿고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는 통로 삼으사 한반도를 넘어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2. 북한을 위한 기도

“온 땅은 오직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액운 없애 주시라요” 집안 소형 불상에 비는 북 주민

일이 잘 풀린다는 소문만 들면 돈을 꾸어서라도...



갈수록 불안한 북한 정부를 믿을 수 없으니 마음의 기둥을 찾고 싶은 북한 사람들이 집안에 소형 불상을 가져다 놓거나 부적을 만드는 등 액운을 없애 달라고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대 수령 신격화로 대중을 통치하는 북한에서는 신을 믿는 것이 발각되면 최고지도자의 권위에 도전하는 반당 행위로 처벌받게 된다.

하지만 생활고에 내몰린 일부 주민들은 돈으로 사들인 불상을 집에 가져다 놓고 기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평안남도 성천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요즘 내가 사는 아파트에는 손바닥보다 조금 큰 불상을 사서 집에 놓는 사람

들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불상은 똑똑이 장사꾼(방문판매)이 새벽마다 아파트를 돌면서 판다”며 “불상 가격은 내화 2만 원(미화 1.17 달러)”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살기 힘든 사람들이 쌀 사 먹을 돈으로 불상을 사는 것은 가정의 액운이 사라진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내 동생은 아침마다 불상 앞에서 손을 모아 소원을 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평안남도의 한 소식통도 “요즘 평성에서도 개인이 만든 불상을 사들여 신주단지처럼 집 안에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나도(40대 여성) 불상을 사서 차대에 놓고 장마당 나가기 전 불상을 보면서 소원을 빈다”며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빈다”고 언급했다.

“불상을 사들인 다른 사람들도 이런 마음은 같다”며 “세상의 액운을 없애주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큰돈이 오가는 장사를 하는 여성들은 마음을 안정시킬 부적을 만든다. 장거리 장사를 떠날 때 소금을 넣은 작은 주머니를 몸에 품고 다니는데, 그 소금 주머니가 액운을 막아주는 부적이 된 것이다.

장사 물품을 운반해야 할 경우는 그 물품을 변소 칸에 놓았다가 차에 싣는 경우가 있다. 이때는 변소 칸의 통이 부적이 된다. 이런 웃지도 울지도 못할 현상이 북한 사회의 현주소이다. 북한에서는 성경 한 권만 집에서 나와도 그 가족을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하고 있는데, 불상은 아직까지 당국의 통제가 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추석 북한 장마당에서 둥근 모양의 밀가루 과자 ‘월병’이 성황리에 팔린 것으로 전해졌다. ‘추석에 월병을 먹어야 집안일이 잘 풀린다’는 미신의 영향으로, 당국의 단속과 처벌에도 여전히 많은 주민이 미신에 기대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이다.

중국 중추절 대표 음식인 월병은 북한 당국에 허가를 받고 드나들었던 조선족 보따리상들을 통해서 1980년대 중반에 처음 유입되었다. 이런 가운데 혜산시 주민 사회에 ‘추석에 월병을 먹으면 일이 잘 풀린다’는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월병을 찾는 주민들이 부쩍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요즘은 사람들이 잘 되는 일도 없고, 벌어도 안 되니 뭘 하면 일이 잘 풀린다는 소문만 돌면 그것이 뭐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하려고 한다”며 “장사꾼들이 돈을 벌기 위해 일부러 낸 소문이라고도 했지만, 한 가닥 희망에 속는 셈 치고 돈을 꾸어서라도 월병을 사 먹기도 했다”고 말했다(출처: 자유아시아방송, 데일리NK 종합).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와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하박국 2:19-20)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시편 101:1-2)

하나님, 3대 수령을 신격화하는 북한에서 불상과 부적 등 여러 미신과 우상숭배로 헛된 기대와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민들의 절박한 실상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로 여기며 자신의 문제해결과 소원성취를 위해 미신을 쫓고 생기가 없는 불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사탄의 간계를 파하여 주십시오. 주여, 사망에서 생명에 이르는 복음에 대해 닫혀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북한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완전한 길을 주목하는 은혜를 베푸사 온 땅을 잠잠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그리하여 헛된 우상을 버리고 주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아 주님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며 주님만 찬양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3. 다음세대를 위한 기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행할지니”

**세상 문화 뒤로 하고 십자가 앞에 모인 학생들
핼러윈에 열린 기독교학생대회 ‘홀리윈데이’**



어둠이 내려앉은 교정에 각양각색의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10월 31일, 세상은 핼러윈(Halloween)으로 기념하는 이날, 한곳에 모인 기독교학생들은 목청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한 승리를 선포했다. 기독교학생대회 ‘홀리윈데이’가 10월 31일 저녁 서울 미아동 신일고등학교 강당에서 열렸다.

더작은재단 스쿨처치임팩트를 비롯해 학교기도불씨운동과 네임리스, 스탠드그라운드, 학원복음화인큐베이팅 등 스쿨처치단체들이 공동주최 및 주관하며, 좋은교사운동과 한국교육자선교회 등 기독교사모임의 협력과 더작은재단의 후원으로 개최

한 이번 행사는 사전 신청만 800명이 넘을 정도로 서울지역 기독교학생들의 열띤 호응 속에 치러졌다.

곳곳에 자리한 교목들과 기독교사, 학부모들도 눈에 띄었다. 강당 중앙에 사방으로 펼쳐진 무대가 설치됐고, 이윽고 무대를 둘러싼 참석자들로 강당이 가득 찼다. 위클리시아의 인도로 1시간 넘게 이어진 찬양의 시간, 학생들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지칠 줄 모르는 체력과 식을 줄 모르는 열정으로 뛰며 찬양했다. 때로는 두 손을 들고 눈을 감은 채 찬양의 가사를 자신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이들은 온 맘과 정성을 다한 뜨거웠던 찬양 시간을 뒤로 하고, 이번에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한 스쿨처치임팩트 대표 최관하 목사는 “핼러윈에 세상 문화에 끌려다니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아온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며 “이곳에 모인 우리를 통해 황폐한 땅에 회복을 일으키실 하나님을 더욱 힘써 예배하자”고 권면했다.

기독교사 출신인 그는 “세상의 직업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업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본업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 이라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각자의 학교에서 이를 위해 몸부림치는 기독교학생들이 되길 당부했다.

말씀으로 도전받은 참석자들은 기독교사와 학생들의 인도로 각자 회개와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가정과 교회, 나라와 민족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홀리데이에는 늦은 밤 10시까지 이어졌다.

학교에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리더로 섬기고 있는 나요찬 군(여의도고 3학년)은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믿는 친구들이 별로 없다 보니 함께 예배하는 자리를 갖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이곳에서 많은 또래 청소년을 보면서 ‘혼자가 아니구나’ ‘나와 함께 이 세상을 싸워 나갈 동역자들이 이렇게나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힘이 되고 감동이 됐다”고 말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친구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고, 다시 학교로 돌아가 더욱 힘써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 힘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회를 기획하고 준비한 최관하 대표는 “오늘 모인 아이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하면서 이들이 살아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라면서 일회성의 행사가 아닌, 청소년들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 위한 자리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계획을 밝혔다 (출처: 기독교신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갈라디아서 5:24-25)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에스겔 11:19-20)

하나님, 귀신과 주술이 가득한 핏덩이를 기념하는 세상 문화를 뒤로하고 기독교학생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십자가의 거룩한 승리를 선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날 드러진 예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순종하는 헌신으로 이어져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기도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소서. 또한 거룩한 통로로 부르심 받은 교회와 부모, 교사들에게 날마다 말씀 앞에 서며 한 마음과 영으로 주의 율례와 규례를 자녀세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의 다음세대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견고히 세워져 선교완성을 이루는 의의 무기가 되게 하소서.

다음은 ‘열방의 긴급기도정보’로 기도가 진행됩니다.

각 해당 장소로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실1 -

기도실2 -

기도실3 -

소그룹별 기도가 마친 후에는 다시 함께 모여 합심기도로 마무리합니다.

기도정보제공: 기도24·365본부 prayer@prayer24365.org